

IPA, 오퍼가격 인상여파 얼마나?

일본가격 톤당 50달러 인상 ... Dow 공급에 따라 국내가격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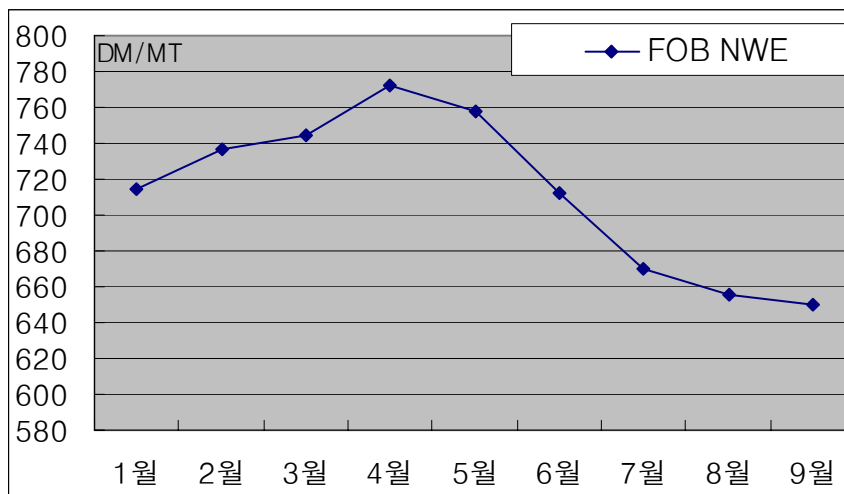
9월 경인지역 도착도 기준 kg당 800-780원에 거래됐던 IPA 가격이 10월 일본의 오퍼가격 인상에 따라 인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PA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일본 공급선인 Tokuyama와 NPC의 10월 오퍼가격이 50달러 인상됐고, Shell의 재고량이 떨어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11월 ExxonMobil의 오퍼가격이 50달러 인상돼 가격상승 움직임이 1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Shell Korea에 따르면, 10월 Cargo가 늦어져 10월20일경에 공급돼 한달 공급물량인 1000톤 정도가 부족한 상태이다.

NPC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한무역은 “최근 Propylene 가격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일본 IPA 생산기업들이 국내 IPA 가격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적정수준의 가격을 받지 못하면 수출하지 않겠다는 엄포까지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10월 가격상승 여부는 Dow의 공급물량 1000톤의 국내유입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IPA 가격추이(2003)



현재 Dow UCC 공급물량은 SK가 7월경부터 월 300톤씩 BWT로 구매해 국내에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 공급분에 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10월 IPA 가격에 대해 한 관계자는 “IPA가 가격변동이 적은 제품으로 오퍼가격 상승으로 시장가격이 그대로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일부에서는 환율하락으로 인해 오히려 kg당 10원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가격상승에 대해 견해를 같이했고, 한 관계자는 “최근 유럽의 Propylene 가격이 높아 유럽 공급물량이 국내에 유입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 일본의 IPA 가격인상으로 국내 IPA 가격도 10월 이후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3/10/09>